

4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 4. 1. (목) 15:00 / 온나라PC영상회의

□ 스쿨존 안전강화 지시

지난 3월 18일, 중구 신흥동 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20.3.25.)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즉시 관계기관 간 TF 구성과 함께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스쿨존 안전강화방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람.
전 인천 지역에 한층 강화된 스쿨존 운영이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우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신흥동 초등학교의 안전 환경부터
조속히 정비해야할 것임.
스쿨존 주변 교통·주차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과감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더 나아가 우리 시 관내 스쿨존 전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인천시의 스쿨존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 아끼지 말기 바람.

□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응 총력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 모두 매우 지쳐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그 동안 공동체의 연대·배려·헌신에 의지하던
우리 시의 모범 방역도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음.
최근 강화군의 폐교, 수도권 택배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나 하나쯤이야', '이제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그 동안 우리가 함께 잘 지켜온 공동체의 안녕을 크게 뒤흔들 수 있음.

다시금 기본을 돌아보고 다 잡을 때임.
업종별 영업제한 시간 준수,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철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림.
특히 시와 군·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람.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됨.
고령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으시거나,
요양병원·요양원 등에 계셔서
가족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어려움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는데 우리 시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람.

특히 관련부서에서는 백신접종 상담·안내에서 점검·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여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미추홀 콜센터, SNS,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홍보방안도 준비하여 함께 보고해주시길 바람.

□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지난 3월 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올 1월에 인천시가 앞장서서 코로나19 민생지원대책을 수립한바 있는데,
다른 지방정부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정부 추경에도 담겨있다고 생각함.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대책 예산(7.3조원)의 80%이상을
5월말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그에 따라 한시생계지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집행해주기 바람.

□ **국비확보 노력, 실·국별 10대과제 관리 철저 주문**

4월 부처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2022년 정부 예산 편성절차가 시작될 것임.

市 공무원으로서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함.

4월까지 각 부처별로 기재부에 예산요청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2022년 예산 반영의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재정기획관실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벌써 올해의 1/4이 지났음.

실·국장님들께서는 연초에 시민들께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과제인 실·국별 10대과제가

업무포털에 등록된 만큼,

이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는 등

실·국별 10대 과제를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

4월 한달도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감사함.